

## Wölfflin과 Delong 이론을 통해 고찰한 영화의상의 형태적 특성 연구

윤 지 영<sup>†</sup>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 of Cinema Costume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Wölfflin and Delong

Jiyoung Yun<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09년 3월 23일), 수정일(2009년 4월 21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4일)

####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the formative character of 1920's fashion through cinema costum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ies of Wölfflin and Delong. This study organizes a new perspective such as closed form & open form, part recognition & whole recognition, and flat & round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orm in the costumes of 'The Great Gatsby', 'Chariots of Fire', and 'Chicago'. The 1920's style in the fashion history is a closed form and flat because of simplicity and functionality. The costumes in 'Chariots of Fire' that focuses on the reappearance of 1920's fashion is a flat and closed form. However, the costumes of 'The Great Gatsby' that presents a symbolic meaning and 'Chicago' that expresses a splendid look are an open and rounded form. Evening dresses are open, with whole recognition and a rounded form because of sheer fabrics, beading, uneven hemlines, and lighting. Daytime dresses are a closed form and flat because of heavyweight fabrics, dark or achromatic colors and non-patterns. Also, open form and rounded, closed form and flat have a similar distribution in diagrams. When the viewer recognizes the form of clothes, they react in a similar way to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presentations that shows that the form of clothes is recognized by the relation with the body. In addition, this study researches the connection between diverse elements such as clothes, body, movements, space, and external elements such as lighting.

**Key words:** Formative Character, Wölfflin, Delong, ABC(Apparel-Body-Construct), Cinema Costume; 형태적 특성, 빌플린, 드롱, 의복 인체 구조, 영화의상

### I. 서 론

예술가는 자신만의 예술언어를 통해 작품을 창작하며 이를 통해 관조자를 비롯한 세상과 의사소통을 한다. 예술언어에는 선, 형, 재질, 색채 등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형식적 측면은 디자이너의 표현 언어일 뿐

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상과 미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예술작품 속 형식적 측면을 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형식미학(formative aesthetics)은 예술작품의 구조적 특징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인 선, 형태, 색, 조화, 균형 등의 조형요소를 관찰하며 그것들이 작품 속에서 만들어내는 미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형식적 측면은 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며 디자이너의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garnet7124@hanmail.net

예술언어이고 작품의 표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식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 이처럼 복식에서 형태적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미술사에서 형식을 보는 범주를 체계적으로 확립시킨 Heinrich Wölfflin(1864~1945)의 형식주의 이론을 고찰해 보고 더불어 이를 복식의 형태를 고찰하는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M. R. Delong의 시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들의 이론을 토대로 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고찰한 선행연구의 경우, 배정민(2008)과 성광숙(2002)은 Delong의 이론을 통해 패션의 역사 속 복식의 형태적 과장과 확대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신주영(2007)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낭만주의 회화 속 복식을 통해 시형식을 고찰하고 있으며 장성은(2007)은 Wölfflin의 이론을 통해 르네상스와 바로크 복식 양식을 분석하고 있다. 김차주 외(1996)는 1990년대 여성 슈트 속 형식미를 Wölfflin 이론을 통해서 고찰하고 있으며 이경아, 전해정(1998)은 Delong의 이론을 토대로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자연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김윤희(2001)는 미국의 고교생 교복의 형태미를 분석하고 있으며 김순영, 남윤자(2002)는 Delong의 시각을 통해 조선 후기와 현대 여자 한복의 형태를 비교하고 있다. 한편 조윤영, 양숙희(2003)는 Delong의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 속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로브의 표현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다양한 시대와 대상을 통해 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고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식을 바라보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 패션의 역사에서 1920년대는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 시기로 특히 이 시기의 여성 복식에서의 형태적 변화는 여성의 생활 패턴까지 바꿔놓는 전환점을 이룬다. Wölfflin과 Delong의 형태를 고찰하는 방법론을 통해 20세기 여성 복식의 형식적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겪은 1920년대 복식을 고찰해 보는 것은 복식에서의 형식적 측면의 중요성과 복식의 형태적 구성이 단순히 외적인 요소로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며 디자이너의 예술언어이고 작품의 표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식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됨을 인지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 시기 복식에서의 형태적 특성을 고찰해 본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문화적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상과 삶까지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과거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매체로는 그림, 사진 그리고 영화가 가장 대표적이며 선행연구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식을 연구하는 경우에서도 이들 매체를 통해 가장 대중적이면서 포괄적인 고찰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행해지던 그림과 사진을 통한 2차원의 정지 상태에서 인체와 복식, 그리고 공간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방식을 벗어나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한 인체와 옷의 상호 관계를 비롯해 의상과 공간을 비롯한 외적 요인의 영향까지도 고찰할 수 있는 영화라는 매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는 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단순히 옷이라는 대상만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입혀지는 인체와의 관계 및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것이 놓여지고 움직이는 공간을 비롯한 외적 요인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복식의 형태를 인식함에 있어 좀 더 다양한 시각과 열린 사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작된 1920년대의 사회와 문화를 다루는 영화 중,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의상상을 수상한 작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 속 복식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현대적 시각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복식의 조형성 고찰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1974)’,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1981)’ 그리고 ‘시카고(Chicago, 2002)’를 선정하고자 하며 각각의 영화는 당 시대의 사회, 문화 그리고 예술을 재현해내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들이다. 연구를 위한 의상 선정은 우선 각 영화의 주요인물의 의상 중 여성 의상으로 제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상류사회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위대한 개츠비’, 실화를 토대로 좀 더 사실적인 1920년대를 묘사하고자 한 ‘불의 전차’, 그리고 1920년대 문화적 코드인 재즈와 댄스를 소재로 한 뮤지컬을 영화화한 ‘시카고’의 각 작품의 제작 의도와 인물들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의상들로, 영화 홍보 자료와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며 동시에 1920년대 복식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한다.

선정한 의상 작품은 H. Wölfflin의 형식주의 이론과 이를 복식의 형태를 고찰하는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M. R. Delong의 관점을 토대로 구성된 새로운 시각의 틀을 통해 형태적 특성을 고찰해 보고 디자이너의

창작물인 의상과 인체, 그리고 그것이 위치하는 공간을 비롯한 외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복식의 형태를 보는 시각

### 1. Wölfflin의 형식주의

20세기 들어 형식사를 대표하는 학자로 Wölfflin을 꼽을 수 있는데 그는 미술사를 형식사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술사적 근원뿐만 아니라 그 근원을 형성하는 예술적인 정신적 의미를 '시형식(schformen, 視形式) 개념'을 통해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다(홍준화, 2002). Wölfflin은 시형식과 표현 가능성들은 자체의 고유한 발전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술가의 내부에 작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기호나 민족적인 성향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보고 예술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적 내용에 달려있지 않고 표현 수단이야말로 예술적 현상에 대해 결정적인 선행조건을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시각의 역사가 어떤 내적인 논리에 따라서, 즉 자체의 고유한 내재적 법칙에 따라 발전하며, 이것은 사회적 생활 조건뿐만 아니라 미술가의 개인적 심리적 체질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되는 외부적인 영향과 무관하다고 봄으로써 철저히 내재적인 형식사의 입장을 취한다(백미서, 1984). Wölfflin은 건축, 회화, 조각의 실제 작품을 순수한 직관적 형식에 따라 비교하여 양식을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형식으로 다섯 쌍의 대립개념, 즉 선적인 것(linear)과 회화적인 것(painterly), 평면성(plan)과 깊이감(recession), 폐쇄된 형태(close form)와 개방된 형태(open form), 다원성(multiplicity)과 통일성(unity), 절대적 명료성(absolute clearness)과 상대적 명료성(relative clearness)이라는 범주를 발전시켰다.

Wölfflin의 다섯 가지 개념쌍 중 첫 번째 개념쌍인, 선적인 것에서 회화적인 것으로의 발전에서 전자는 형태를 윤곽선이나 면을 통해 축약적으로 파악하며 물체의 한계를 강조한다. 이는 조형적이고 외곽선을 강조하는 시각으로서 물체를 고립시킨다(장호식, 정진원, 2003). 반면 후자는 단지 시각적 겉모습만을 보고 가측적인 표현을 포기한다. 여기서는 형태의 한계가 불분명하며 물체들이 서로 결합되어, 보이는 전체가 부유하는 가상으로 파악된다(벨플린, 1922/2004). 전자는 대상의 한계가 강조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대상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게 드러난다.

두 번째 개념쌍은 평면성에서 깊이감으로의 발전이다. 고전미술, 즉 16세기 미술은 전체 형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표현할 때 동일한 층에 평면적으로 표현하지만 17세기 바로크 미술은 튀어나오고 들어간 관계를 강조한다. 편평함은 선의 요소이며, 평평하게 늘어놓는 것은 가장 확대된 시야의 형태이다. 17세기에 들어 예술작품의 윤곽선은 점점 의미를 상실하면서 편평함의 의미도 상실되고 사물은 근본적으로 들어가고 나온 관계로 결합된다(벨플린, 1922/2004).

세 번째 개념쌍은 폐쇄된 형태와 개방된 형태로 형태나 화면 전체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고안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 폐쇄된 형태는 화면 전체가 의도적으로 고안된 느낌을 주며 인물들과 사물들은 상자형 공간에 설정되어 닫혀진 형식을 구성한다. 반면에 개방된 형태는 우연적 순간이 추구되고 그림들 자체가 한정되는 것 외에는 그림 내부의 인물, 사물, 구조 등은 유동적이다. 이런 우연적 순간의 추구는 개방된 형태 원리의 한 근원을 이룬다(김연수, 1999).

네 번째 개념쌍에서는 다원성에서 통일성으로의 발전이 나타난다. 16세기 미술에서 부분은 전체에 의해 규정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각각 고유한 독자성을 지닌다. 관찰자는 16세기의 미술 작품을 볼 때 부분과 부분을 결합하면서 관찰하지만 17세기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작품의 통일성은 16세기의 미술에서 독립된 부분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17세기에는 한 주제로 부분들을 집결시키거나 지배적인 요소에 여타 요소를 종속시킴으로써 달성된다(벨플린, 1922/2004).

마지막 개념쌍은 절대적 명료성과 상대적 명료성이다. 고전적 미술에서는 아름다움이란 늘 형태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바로크에서는 소재의 명료성을 약화시켜 중요 특성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 선, 색채가 독립적으로 발전하면서도 빛이 형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므로써 외곽선이 분명히 식별되지 않는다(김연수, 1999). 17세기에는 더 이상 소재의 명료성 그 자체가 재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으며 형태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하는 대신 중요한 특징만을 전달하였다(벨플린, 1922/2004).

### 2. Delong의 ABC(Apparel-Body-Construct) 이론

Delong은 복식의 시각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호를 제시하였다(Delong, 1998). Wölfflin의 이론을 복식, 인체와 그것이 놓이는 공간에 적용해

ABC(apparel-body-construct)를 보는 체계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폐쇄형(closed)과 개방형(open), 부분형(part to whole)과 전체형(whole to part), 공간 분리형(figure ground separated)과 공간 통합형(figure ground integrated), 평면형(flat)과 입체형(rounded), 명료형(determinate)과 불명료형(indeterminate)이 그것이다.

첫 번째 개념인 폐쇄형과 개방형이란 ABC와 주위 공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의 표현이다. 전자는 명료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연속적이며 단순한 선과 실루엣을 가진 자기 수용형의 복식이고, 반면에 후자는 모호한 가장자리를 가지며 불연속적이고 복잡한 선을 가지고 ABC와 주변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복식이다. 폐쇄형 ABC는 관찰자에게 즉각적으로 인지되며 그 명확성 때문에 보다 쉽게 지각된다. 반면 개방형과 주변은 상호 의존적이다. 폐쇄형과 개방형은 시각효과에 의해 형성되는 개념의 양끝에 위치한다.

두 번째 개념쌍은 부분형과 전체형으로 이는 관찰에서 가장 먼저 분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부분형 관찰은 관찰자가 부분들을 먼저 보고 다음에 전체를 볼 때 일어나며 전체형은 관찰자가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분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관조자가 복식 자체를 인식함에 있어 전체를 먼저 인식하고 부분으로 이동하느냐 혹은 부분을 먼저 인식하고 전체로 이동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 번째 개념인 공간 분리형과 공간 통합형의 경우, 전자는 분명한 가장자리로 복식의 표면이 흩어져 분리되는 형을 의미하고 후자는 불분명한 가장자리로 표면이 차서 상호 연관된 형들의 개념을 의미한다. 관찰자와 ABC 사이의 공간은 관찰자의 인식에 의해 모양과 바탕의 공간 관계로 표현되며 모양-바탕의 관계는 관찰자가 ABC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 번째 개념인 평면형과 입체형에서 Delong은 공

간에서 인체와 옷의 구조는 3차원 형태이지만 특성에 따라 3차원 형태 또는 2차원 형태로 지각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실루엣에 주목하는 관찰자는 ABC를 2차원으로 혹은 평평한 공간으로 보게 되는 반면, 표면에 광택이 있는 직물이 인체 곡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주의하는 관찰자는 ABC를 3차원 혹은 입체적인 원통형으로 보게 된다.

마지막 개념인 명료형과 불명료형은 ABC의 표면 두께와 관찰자로부터의 거리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는 관찰자가 느끼는 ABC의 표면과의 거리감이다. 즉 표면이 얼마나 가깝게 또는 멀리 보이느냐 하는 것과 얼마나 쉽게 파악되느냐 하는 것이다. 명료형이란 날카롭고 규칙적이고 깨끗하게 처리된 표면을 묘사하는 것이며 불명료형의 표면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방식이 덜 명료한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 3. 새로운 개념쌍

본 연구에서는 Wölfflin과 Delong의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의상의 형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두 이론가의 관점에서의 연관성과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의상을 보는 새로운 개념쌍을 <표 1>을 통해 제시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첫 번째 쌍은 폐쇄형(closed form)과 개방형(open form)으로 이는 Delong의 폐쇄형과 개방형, Wölfflin의 형식 이론에서 폐쇄된 형태와 개방된 형태쌍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식에서 실루엣이 어떻게 형태를 한정짓는가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점유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폐쇄형은 공간과 뚜렷하게 구분짓게 하는 명료한 실루엣, 공간과의 대조적인 색상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개방형은 불연속적이며 복잡한 실루엣, 비치는 가벼운 소재에 의한

<표 1> Wölfflin과 Delong 이론의 관계 및 새로운 개념쌍

Wölfflin의 형식주의	Delong의 ABC 이론		새로운 개념쌍
· 폐쇄된 형태 & 개방된 형태	· 폐쇄형 & 개방형	→	· 폐쇄형 & 개방형
· 다원성 & 통일성 · 선적인 것 & 회화적인 것	· 부분형 & 전체형 · 공간 분리형 & 공간 통합형	→	· 부분 인식형 & 전체 인식형
· 평면성 & 깊이감 · 절대적 명료성 & 상대적 명료성	· 평면형 & 입체형 · 명료형 & 불명료형	→	· 평면형 & 입체형

공간과의 상호작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 쌍은 부분 인식형(part recognition)과 전체 인식형(whole recognition)으로 이는 Delong의 부분형과 전체형을, Wölfflin의 다원성과 통일성의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이는 관조자가 대상을 관찰할 시 가장 먼저 분리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부분 인식형은 복식의 부분을 먼저 인식하는 경우이고 전체 인식형은 관조자가 복식의 전체를 먼저 인식하는 경우이다. 즉 복식의 부분을 먼저 인식할 경우 복식 사이의 공간은 분리되어 인식되고 복식의 전체를 먼저 인식할 경우는 복식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인식된다. 이는 실루엣, 소재의 재질감과 패턴, 색상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Delong의 공간 분리형과 공간 통합형 역시 복식의 실루엣, 원단의 종류, 복식의 디테일 등과 관련되어 복식을 부분 부분으로 인식하는가 혹은 복식을 하나의 통합체로 인식하느냐에 의한 구분이다. 이는 모양과 바탕의 다의성이란 문제가 발생하여 관찰자의 의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관계쌍의 경우 복식을 하나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이와 복식을 구성하는 부분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분 인식형과 전체 인식형의 카테고리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세 번째 개념쌍은 평면형(flat)과 입체형(rounded)의 개념으로 이는 Wölfflin의 평면성과 깊이감, Delong의 평면형과 입체형의 개념에 해당된다. 복식은 인체에 입혀짐으로써 3차원의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나 Delong은 인체에 입혀진 상태에서 원단의 느낌과 텍스처, 디테일에 의한 표현, 명도의 차이에 의해 평면형 혹은 입체형으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이는 Delong의 명료형과 불명료형의 대립쌍과 공통적인 부분을 갖는다. 명료형과 불명료형은 원단의 표면 혹은 재질감, 문양, 명암의 효과 등의 요소로 분류되는 개념으로 이는 평면형과 입체형을 구분하는 요소들 중 원단의 특

성과 디테일적인 요소에 좀 더 집중하여 분류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료형과 불명료형 대립쌍을 평면형과 입체형의 개념에 포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새롭게 구성한 개념쌍의 특성은 <표 2>를 통해 제시하였다.

### III. 영화의상의 형태적 특성

#### 1.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1974)

192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인 F. Scott Fitzgerald (1896~1940)의 소설을 토대로 당시 미국 상류사회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로 당 시대의 의상을 화려하고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주인공인 Daisy의 의상은 전형적인 1920년대의 스트레이트 실루엣 드레스와 A라인 형태의 케이프 앙상블을 주 아이템으로 하면서 챙이 넓은 밀짚모자와 진주목걸이, 긴 스카프를 액세서리로 매치시켜 주고 있다(사진 1). 이 영화의 의상 디자이너인 Theoni V. Aldredge는 흰색과 파스텔 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밝고 꿈꾸는 듯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비즈, 패거팅(fagoting), 자수, 리본, 꽃 등의 장식적 요소를 사용해 여성스럽고 소녀다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케이프에 사용된 다양한 플리츠 디테일은 1920년대의 입체주의의 영향이 의상에 표현된 예로 입체적 조형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소재도 시폰과 같이 비치면서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의 망토를 연상시키는 이국풍의 드레스와 액세서리는 1920년대 유행하던 이국적인 요소들이 의상에 응용된 예를 보여준다(사진 2). 또한 은색의 비즈 드레스와 클로슈(cloche)의 앙상블은 입체주의 영향을 받은 패턴의 배열, 행커칩 패넬에 의해 형성된 바이어스 스커트 라인이 특징적이며 비즈 장식에 의한 화려함과 율동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사진 3).

<표 2> 영화의상 고찰을 위한 새로운 개념쌍

새로운 개념쌍	특성
폐쇄형 & 개방형 (복식과 공간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쇄형-명료한 실루엣, 공간과의 대조성</li> <li>· 개방형-불연속적이며 복잡한 실루엣, 공간과의 상호작용</li> <li>-인체에 입혀진 상태에서 원단의 느낌과 텍스처, 문양, 디테일에 의한 표현, 명도의 차이에 의한 실루엣 그리고 공간과의 관계</li> </ul>
부분 인식형 & 전체 인식형 (복식 내에서의 인식 우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 인식형-복식의 부분을 먼저 인식</li> <li>· 전체 인식형-복식의 전체를 먼저 인식</li> <li>-실루엣, 소재의 재질감과 패턴, 색상, 디테일 등과 관련</li> </ul>
평면형 & 입체형 (표면적 특성에 의한 거리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면형-2차원으로 혹은 평평한 공간으로 인식</li> <li>· 입체형-3차원 혹은 입체적인 원동형으로 인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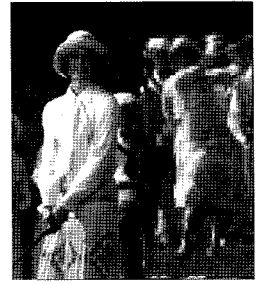
<사진 1> 시폰 드레스와  
케이프 앙상블,  
The Great  
Gatsby, 1974



<사진 2> 미국풍의  
망토형 드레스,  
The Great  
Gatsby, 1974



<사진 3> 비즈 이브닝  
드레스와 클로슈,  
The Great  
Gatsby, 1974



<사진 4> 운동복,  
The Great  
Gatsby, 1974

운동복은 실용성과 편안함이 우선이 된 의상으로 소재에 있어서 저지와 면을 사용하고 디자인에서는 플리츠 디테일을 사용하고 있다(사진 4). 플리츠 스커트 전체를 장식하는 미름모 문양의 패턴은 스커트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면서 입체적인 아름다움과 율동적인 움직임을 느끼게 해준다. 이를 통해 1920년대의 입체주의의 영향을 의상에 표현하고자한 디자이너의 의도를 관찰할 수 있다.

## 2.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1981)

‘불의 전차’는 1924년 파리 올림픽이라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사실성에 바탕을 둔 영화로 영화 속 의상은 Milena Canonero가 디자인했다. 영화 속 의상에는 1920년대 초 복식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실루엣과 디테일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1910년대 복식의 특징도 관찰된다.

데이타임 드레스의 경우, 허리선은 제 허리선의 위치에서 아래로 많이 내려가지 않았으며 스커트의 길이도 발목 기장을 나타낸다. 특히 네크라인의 경우,

1920년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 바투(bateau) 네크라인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수나 러플, 꽃 장식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해 주었고 색상은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원단은 시폰, 면 등의 가볍고 소프트한 소재가 사용되었다(사진 5). 1920년대 입체주의의 영향으로 보이는 다양한 디테일의 예가 관찰되는데 네크라인을 따라 프린트된 사각형의 패턴 배열이라든가 허리 부분에 사각의 패널을 달아준 드레스, 가는 플리츠 장식의 스커트, 턱 장식 등이 그것이다(사진 6).

이 영화의 여성 의상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 의상을 응용한 튜블러(tubular) 실루엣의 테일러드 수트이다(사진 7). 1920년대 수트는 일반적으로 더블 브레스트의 재킷과 스커트를 한 벌로 착용하였으며 특히 1920년대 초반에는 힙을 덮는 긴 기장의 재킷을 입었다. 원단의 경우도 남성복과 다름없이 트위드를 애용했으며 색상도 흰색을 비롯해 브라운이나 회색 계열을 사용했다.

이브닝 드레스의 경우는 깊게 파인 다양한 형태의 네크라인과 소매가 없고 등 뒤가 드러난 디자인이 지배적이다(사진 8). 깊게 파서 등을 노출시킨 드레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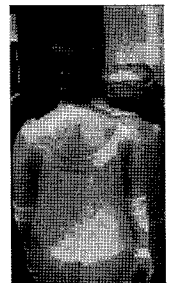
<사진 5> 자수 장식의  
데이타임 드레스,  
Chariots of Fire,  
1981



<사진 6> 프린트 장식의  
데이타임 드레스,  
Chariots of Fire,  
1981



<사진 7> 테일러드 수트,  
Chariots of Fire,  
1981



<사진 8> 이브닝 드레스,  
Chariots of Fire,  
1981

뒤 형태가 시선을 끌며 여기에 비즈로 다양하게 장식해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 3. 시카고(Chicago, 2002)

‘시카고’는 1920년대 문화를 대표하는 재즈와 춤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영화의 의상 디자이너는 Colleen Atwood로 무용복에 중점을 둔 세시하고 화려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데이타임 드레스의 경우도 레이스, 모피와 액세서리를 통해 여성스러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와인 색상의 데이타임 드레스는 1920년대의 여성 의상의 심플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사진 9). 일자형 슈미즈 드레스에 레이스로 캐미솔 네크라인 부분을 장식해 여성스러움을 가미했고 그 위에 모피로 장식된 코트를 입어 우아한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짧은 단발머리에 놀러 쓴 클로슈는 플래퍼(flapper)의 경쾌함을 전해주고 있다.

무용복의 경우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아워글라스 실루엣에 상체가 드러난 디자인이 지배적이며 짧은 스커트 라인이 여성의 다리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비즈로 장식해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비즈의 움직임에 의한 울동적인 아름다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검은색 무용복의 경우 허리 부분에서 모아졌다가 스커트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비즈 장식의 움직임이 재즈 리듬에 맞춰 춤추는 여성의 인체와 어우러져 힘찬 역동미를 느끼게 한다(사진 10). 또한 비즈를 프린지(fringe) 형태로 달아 스커트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게 해 화려함과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바다 수트 형태의 드레스는 전체적으로 물결 모양의 비즈로 장식해 표면의 입체적인 재질감을 강조하

고 있으며 동시에 빛에 따라 반사되는 비즈의 반짝임이 매우 화려하다(사진 11). 피날레 장면에서 나온 흰색의 비즈 드레스는 1920년대 입체주의의 영향이 옷에 나타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사진 12). 드레스 전체가 마름모 패턴의 배열로 되어있고 패턴의 모양을 따라 비즈로 장식해 입체적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여준다. 또한 마름모 패턴의 라인과 일치하게 비즈를 프린지의 형태로 매달아 주어 춤추는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면서 역동적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세 편의 영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의상의 형태적 특성을 <표 3>을 통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IV. 새로운 개념상을 통해 고찰한 영화의상

### 1. 폐쇄형과 개방형

폐쇄형과 개방형은 실루엣의 형태, 영화의상과 그것이 놓이는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분된다. ‘위대한 개츠비’ 의상의 경우 비치는 원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흰색을 비롯한 파스텔톤의 색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진 1>에서와 같이 파스텔톤의 비치는 원단은 의상의 실루엣을 불연속적으로 만들며 의상이 놓여지는 공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방형의 특성을 드러낸다. 또한 헝거칩 패널, 인셋(inset), 고데(godet) 그리고 러플(ruffle)과 같은 불규칙적인 스커트 라인은 인물의 움직임을 따라 공간과 상호작용한다. 또한 <사진 3>과 같이 비즈가 드레스 전체에 장식되고 라메(lamé)와 같이 표면이 반짝이는 원단을 사용한 경우 개방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원단은 빛 또는 조명을 받아 의상이 놓여지는 공간과 상호작용하면서 불연속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낸다.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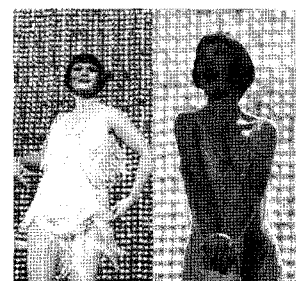
<사진 9> 데이타임 드레스와 코트, Chicago, 2002



<사진 10> 비즈 장식의 블랙 드레스, Chicago, 2002



<사진 11> 바다수트 형태의 비즈 드레스, Chicago, 2002



<사진 12> 마름모 패턴 배열의 비즈 드레스, Chicago, 2002

<표 3> 영화 속 의상의 형태적 특성

		위대한 개츠비	불의 전차	시카고
선	네크라인	· 라운드, 캐미솔 네크라인 · 비치는 원단을 사용한 이종의 네크라인	· 바투 네크라인 · 테일러드 수트의 V형 네크라인	· V자형, 캐미솔 네크라인 · 비치는 원단을 통한 이중적 네크라인
	스커트 라인	· 행커칩 패널, 인세트, 고데, 러플 등에 의한 불규칙한 스커트 라인 · 잎사귀 모양의 라인	· 무릎 기장 혹은 발목 기장의 일자형 라인 · 다양한 패널의 형태에 의한 불규칙한 스커트 라인	· 비즈를 프린지 형태로 늘어뜨린 다이내믹한 스커트 라인 · 힙 기장의 스커트 라인
	비즈 장식선	· 드레스 전체를 장식하는 비즈 장식 · 클로슈의 비즈 장식-움동적인 조형미와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줌	· 이브닝 드레스에서 부분적인 디테일 장식적으로 사용 · 모자, 액세서리 등에 사용	· 스커트 형태로 퍼져나가는 비즈 장식선 · 마름모 패턴 형태를 따라 달린 프린지 형태 비즈 장식선 · 스커트 끝부분 비즈 장식선
패턴	지오메트릭 패턴	· 저지 소재 가디건의 기하학적인 패턴 · 플리츠 스커트의 마름모 패턴	· 네크라인과 상체의 마름모 패턴 · 마름모 패턴 프린트 배열	· 드레스 전체가 마름모 패턴 · 마름모 패턴을 사용하여 1920년대 입체주의의 영향을 표현
	패널의 배열	· 층층의 러플 배열 · 삼각형 패널의 배열 · 캐스캐이드-삼각형 패턴 형성	· 사각형의 패널을 허리선에만 부착시켜 움직임 때마다 흔들리도록 한 디자인의 드레스	· 마름모 패턴의 입체적인 배열 · 비즈 장식을 통한 사선의 패널 배열
디테일	플리츠 디테일	· 플리츠가 잡힌 케이프 · 클로슈에 잡힌 플리츠 · 플리츠 스커트	· 스커트 전체에 잡힌 플리츠 · 드레스 상체에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된 플리츠	· 툴로 만든 무용수의 스커트
	레이스/자수장식	· 레이스 디테일 · 코트에 장식된 용 문양	· 레이스를 덧대어 준 드레스 · 장갑, 모자에 사용	· 레이스 장식의 비치는 원단 · 자수 장식이 된 원단 사용
원단의 특성	원단에 따른 재질감	· 라메와 같은 반짝이는 원단의 사용을 통한 입체감	· 여성 수트에 사용된 트위드 원단의 독특한 재질감 · 기하학적 패턴의 프린트 장식	· 비즈를 패널 전체에 장식하여 입체적인 재질감을 표현 · 니트, 체크 원단
	색상	· 화이트, 파스텔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로맨틱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	· 흰색, 검은색, 브라운, 회색 등을 사용해 시크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표현	· 블랙, 화이트, 레드 등 강렬한 색상의 사용과 색상의 대비

진 4>의 플리츠 스커트의 경우는 실루엣 자체는 명료하지만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복잡한 실루엣을 만들면서 개방형으로 변화한다. 반면 <사진 2>의 경우는 명확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폐쇄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불의 전차’에서 <사진 5> 의상은 시폰과 같이 비치는 원단의 사용을 통해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또한 원단을 이중으로 겹쳐 사용함으로써 움직임에 의해 변화하는 복잡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6>-<사진 7>의 경우는 짙은 색상의 무게감이 있는 원단을 사용하여 명료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공간과의 명확한 대조를 이루는 폐쇄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사진 8>의 경우 의상의 형태 자체는 폐쇄적 형태이지만 표면에 광택이 있는 원단을 사용하여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개방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시카고’의 경우 무용복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비즈의 장식이 화려하게 장식된 의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 12>의 경우 비즈 장식과 비치는 원단을 사용하여 불연속적이고 복잡한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으며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프린지로 장식된 스커트 라인은 춤을 추는 동작을 따라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불연속적이고 복잡한 실루엣을 드러내며 공간과 상호작용한다. 원단에 장식되는 비즈 장식이 화려하고 복잡할수록 빛과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더욱더 복잡한 실루엣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특성은 <사진 10>-<사진 11>를 통해서도 고찰되고 있다. 데이터타입 드레스인 <사진 9>의 경우는 폐쇄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단 모피 장식은 부분적으로 불연속적인 실루엣을 드러낸다.

세 편의 영화를 통해 고찰한 결과 폐쇄형과 개방형을 결정하는 요소들에는 원단의 종류와 움직임에 의한 공간과의 상호작용 정도, 패널의 다양한 형태로 인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실루엣, 비즈 또는 광택 소



재의 원단이 인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빛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빛어내는 공간과의 관계 등이 있다. 폐쇄형의 경우는 비치지 않는 원단이나 장식이 없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 공간과의 구별이 뚜렷하고 반면에 개방형은 비치는 원단, 또는 비즈 장식이 있어 움직임에 의해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실루엣의 특성을 보인다. 비치는 원단을 사용한 의상은 인체와 의상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공간과도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비즈가 장식된 의상은 인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영화속 조명과 같은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다.

## 2. 부분 인식형과 전체 인식형

부분 인식형과 전체 인식형은 관조자가 의상의 부분을 먼저 인식하는가 혹은 의상의 전체를 먼저 인식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소재의 특성과 패턴의 형태, 색상 그리고 디테일과 관련되어 있다. '위대한 개츠비' 의상은 층층의 러플 배열, 삼각형 패널의 배열 그리고 캐스케이드(cascade)에 의한 패턴 형성을 통해 부분을 먼저 인식하게 하는 의상이 많이 등장한다. <사진 1>의 경우는 드레스 전체가 층층의 패턴을 배열한 의상이지만 각 패널의 색상의 차이를 크게 주지 않아, 부분 인식형이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 반면에 <사진 2>의 경우는 삼각형의 패널 배열을 통해 드레스를 구성하고 있으며 색상의 차이를 크게 주어 의상의 전체적인 형태보다 기하학적인 부분을 먼저 인식하게 하는 부분 인식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사진 4>의 플리츠 스커트는 움직임에 의해 플리츠 라인과 스커트를 장식하고 있는 마름모 문양이 시선을 끌며 이는 부분 인식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사진 3>의 경우 드레스 전체가 대각선의 바이어스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드레스 구성 자체는 부분형의 특성을 가지지만 빛과 움직임에 의한 비즈의 빛 반사로 전체 인식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불의 전차'의 의상은 전반적으로 단색의 장식이 많지 않은 의상이 많이 등장하며 이는 전체 인식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분적인 장식이 있는 의상인 <사진 5>의 경우는 상의에 자수로 꽃 문양이 장식되어 있으며 <사진 6>의 경우는 마름모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사진 5>의 의상과 같이 장식이 바탕 원단과 유사하거나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는 큰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아 부분 인식형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

8>의 경우는 단색의 장식이 없는 심플한 드레스로 전체 인식형의 특성을 보이며 <사진 7>은 칼라 부분의 디테일을 제외하고 전체 인식형의 특성을 보인다.

'시카고'의 의상은 비즈로 장식된 의상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장식되기 보다는 의상 전체를 장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색상의 경우도 흰색, 은색 혹은 검은색의 단색이 사용되고 있다. 즉 의상의 대부분이 단색으로 되어있으며 비즈로 전체가 장식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전체 인식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더불어 조명의 영향으로 인한 빛의 반사 작용에 의해 전체 인식형의 특성을 더한다. <사진 11>의 경우는 장식이 없이 심플한 실루엣과 대각선 방향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비즈 장식으로 인해 전체 인식의 정도가 강한 반면 <사진 10>과 <사진 12>의 경우는 스커트 밑단의 프린지 형태의 비즈 장식선, 비즈로 장식된 이층의 네크라인과 상체의 마름모 형태의 비즈 패턴으로 인해 전체 인식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사진 9>는 드레스와 코드의 앙상블이지만 비슷한 톤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 인식형의 특성을 나타내며 깃털 장식은 부분 인식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부분 인식형 의상의 특성은 의상을 인식할 경우 부분적인 디테일이 먼저 인식되는 경우로 플리츠 스커트에 장식된 마름모 문양, 드레스에 장식된 기하학적인 패턴,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패널 등이 그 예이다. 반면 전체 인식형 의상의 경우는 소재의 재질감과 원단의 패턴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장식이 없거나 혹은 의상 전체가 일률적인 패턴을 나타내는 의상이 그 특성을 드러낸다. 비즈로 장식된 의상의 경우에서 확실적인 비즈 패턴 장식의 의상은 전체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비즈 장식 시 의상 내에 패턴을 만드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또한 색상의 사용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의 의상에 대조적인 색상을 사용한 경우 부분 인식형의 특성을 보이며 단색 혹은 무채색의 사용은 전체 인식형의 특성을 보인다.

## 3. 평면형과 입체형

'위대한 개츠비'의 <사진 1>의 경우 시폰의 단색 원단의 사용은 평면형의 특성을 나타내나 원단을 겹겹으로 사용하여 움직임에 의한 입체형의 특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는 원단의 종류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그 반대의 예는 <사진 2>에서 고찰할 수 있다. 이

의상은 단색의 불투명한 원단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배열하고 있어 평면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사진 3>은 의상 전체에 비즈를 사용하여 움직임과 빛의 영향에 의해 입체적 형태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한 <사진 4>의 플리츠 스커트의 경우 움직임에 의한 플리츠의 입체적 형태와 더불어 스커트에 패널을 따라 형성된 마름모 문양은 의상의 입체적 형태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의 전차’의 의상은 타 영화 의상에 비해 입체적인 성향이 적게 표현되고 있다. 원단에 사용된 문양의 경우도 바탕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작은 부분만 사용되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원단의 종류 역시 광택의 소재보다는 시폰, 울과 같이 텍스처가 없는 원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요하게 사용된 색상도 흰색, 회색과 검은색이 주를 이루고 있어 평면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 <사진 6>-<사진 7>은 전형적인 평면형의 예를 나타낸다. <사진 5>의 경우는 원단 자체는 평면형의 특성을 나타내지만 비치는 원단을 여러 겹 사용하여 입체성의 특성도 드러난다. <사진 8>의 경우는 광택 소재의 원단을 사용하여 움직임과 빛에 의해 입체성을 나타내게 된다.

‘시카고’의 경우는 전체를 비즈로 장식한 의상이 대부분이며 이는 빛과 조명의 영향을 받아 입체적 특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사진 10>-<사진 12>를 통해 보여진다. 또한 비즈가 프린지 형태로 장식된 스커트는 춤동작에 의한 입체적 움직임의 형태를 최대로 표현해내고 있다. <사진 9>의 경우는 평면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장식된 털의 경우는 입체형의 특성을 드러낸다.

평면형과 입체형은 원단의 종류와 텍스처, 그리고 명도의 차이에 의해 구별된다. 평면형의 경우는 의상에 장식성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색상이 질거나 무채색인 경우가 많다. 더불어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면을 분할하고 있어 시각적으로 2차원의 편평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반면 입체형의 특성을 보이는 의상은 비즈로 장식되어 있어 움직임과 빛에 의해 인체의 입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시카고’에 등장하는 비즈로 의상 전체가 장식된 의상은 조명의 영향을 받아 3차원의 입체성이 최대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하는 플리츠 스커트의 경우는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3차원적 입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평면형과 입체형은 원단의 종류, 텍스처와 디테일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영화의상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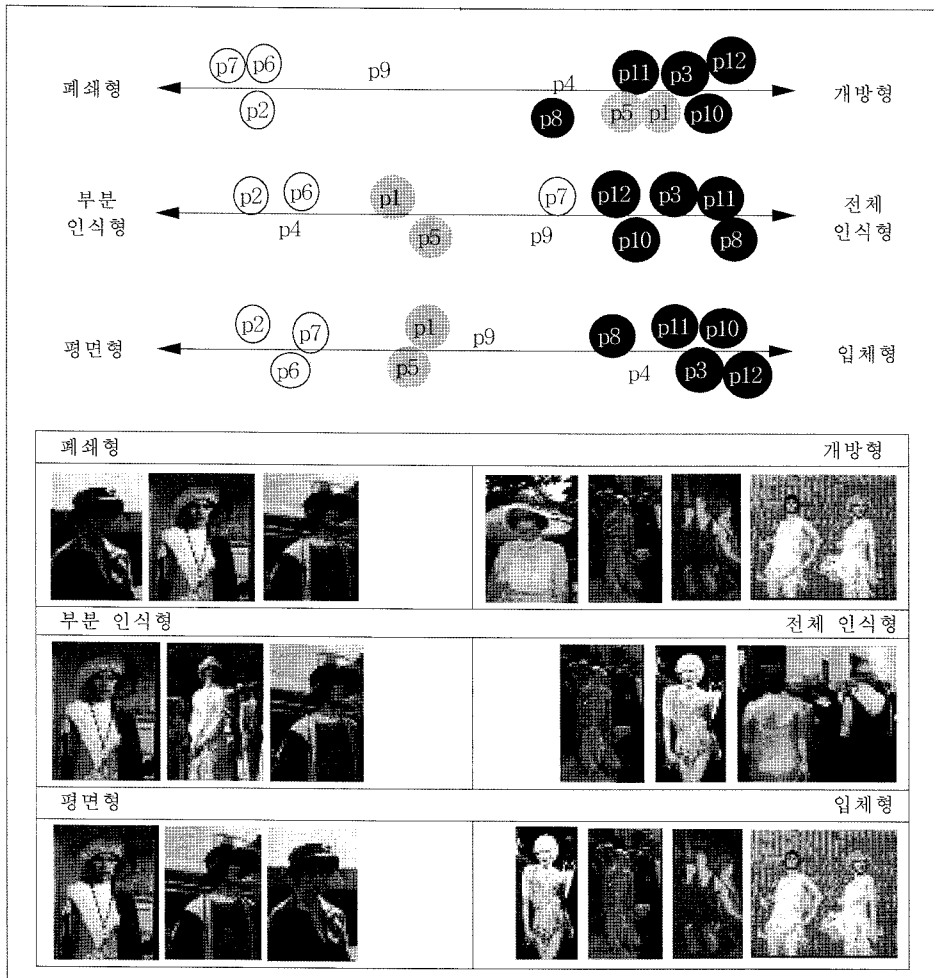
조명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 V. 결 론

Wölfflin과 Delong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새로운 시각의 틀을 통해 고찰한 영화의상의 형태적 특성을 <그림 1>을 통해 도표화시켰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그룹은 비즈가 장식된 이브닝 드레스로 이들은 개방형이며 동시에 전체 인식형과 입체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소재와 장식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비치는 원단의 사용, 비즈를 드레스 전체에 장식하는 방식, 불규칙한 스커트 라인 등의 사용이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입체형의 특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또한 빛과 조명이라는 외적 요소와 의상을 입은 인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흰색의 동그라미로 표시된 그룹은 무게감 있는 무채색 계열의 데이타임 드레스로 폐쇄형이면서 동시에 평면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소재와 색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무게감 있는 소재는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덜 이뤄지며 무채색과 어두운 계열 색상의 무광택 혹은 패턴이 없는 원단은 평면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 회색의 원으로 표시된 시폰과 같이 가볍고 비치는 소재의 데이타임 드레스 그룹은 개방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소재의 의상은 인체와의 상호작용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치는 소재를 통해 보여지는 인체의 형태와 실루엣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원단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면서 드러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플리츠 스커트의 경우는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형태적 특성에 변화가 나타난다. 인체가 움직이면서 플리츠 라인이 움직이게 되고 이로 인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더불어 평면형에서 입체형으로 변화한다. 또한 스커트를 장식하고 있는 마름모 문양은 이와 같은 특성을 배가시키는 작용을 하며 부분 인식형의 특성을 나타내게 한다.

1920년대 시대 복식은 실루엣의 단순화와 기능성의 추구로 폐쇄적이고 평면적인 형태적 특성을 나타낸다. 영화의상의 경우, ‘불의 전차’와 같이 당 시대 복식의 재현에 좀 더 중점을 맞춘 경우는 폐쇄적이고 평면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 상징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위대한 개츠비’와 장식성과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는 ‘시카고’의 의상은 개방적이고 입체적인 형



● 비즈가 장식된 이브닝 드레스 ○무계감 있는 소재의 데이트입 드레스 ● 가벼운 소재의 데이트입 드레스

<그림 1> 개념쌍을 통해 고찰한 영화의상의 형태적 특성

태의 특성을 나타낸다.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개념적이고 상징적인 창작 의지가 형태적 특성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식에서의 형태란 의미를 담아내는 틀(frame)일뿐만 아니라 복식의 의미 자체로 작용한다. 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통해 창작자의 예술의지를 읽어낼 수 있으며 이는 복식의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식의 의미와 그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하나의 예술언어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한 영화의상의 경우 역시 당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반영할 뿐만 아니

라 창작가의 내적 예술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영화와 같이 3차원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형태적 특성의 고찰은 옷과 인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Delong이 언급하고 있는 공간과의 관계를 좀 더 비주열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복식의 형태적 특성 고찰을 위해 사용한 개념쌍의 경우, 개방형과 입체형, 폐쇄형과 평면형은 거의 같은 위치와 분포의 경향을 나타낸다. Delong의 시각을 토대로 폐쇄형과 개방형은 공간과의 관계에, 평면형과 입체형은 표면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형태를 인식함에

있어 유사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폐쇄형과 개방형이라는 3차원의 공간적 인식은 평면형과 입체형이라는 2차원적 인식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복식의 형태는 인체와의 관계를 토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순영, 남윤자. (2002). 조선 후기와 현대의 여자 한복 형태 비교. *복식*, 52(5), 61-77.
- 김연수. (1999). 뷔플린의 양식론. *덕성여자대학교 논문집*, 11, 343-356.
- 김윤희. (2001). 미국 고교생의 교복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25(6), 1167-1178.
- 김차주, 이선경, 김옥진. (1996). 1990년대 fashion에 나타난 여성수트의 형식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정과학연구*, 6, 25-38.
- 배정민. (2008). *Delong 이론의 지표적 고찰을 통한 패션의 형태적 과장 현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미서. (1984). *E. Panofsky의 예술의욕 개념의 이해를 위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뷔플린, 하인리히. (1922). *미술사의 기초개념*. 박지형 옮김 (2004). 서울: 시공아트.
- 성광숙. (2002). *복식 확대현상의 미적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주영. (2007). *복식에 표현된 시대적 이상미와 시(視)형식: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 회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경아, 전해정. (1998).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37, 253-273.
- 장성은. (2007). 뷔플린의 양식사적 관점에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복식의 양식비교. *복식*, 57(7), 15-29.
- 장호식, 정진원. (2003). 하인리히 뷔플린의 이론적 내진감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논문집*, 26, 47-67.
- 조윤영, 양숙희. (2003). 영화의상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로브의 표현효과. *복식*, 53(3), 89-106.
- 홍준화. (2002). *조형예술의 시형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Delong, M. R. (1998). *The way we look: Dress and aesthetics*. New York: Fairchild.